

# 오피니언

##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 光日春秋

박후건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중미 정상회담은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진정한 G2 국가로 거듭나는 것을 알리는 전주곡이었다. 1990년 소련의 몰락 이후 미국은 유일한 슈퍼파워였으나, 냉전 당시 미국과 소련의 관계와 현재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먼저 소련은 미국에 버금가는 군사대국이었으나, 경제적인 면에서는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미국 다음의 경제대국이며 연간 10%가 넘는 경제성장을 하고 있어 조만간 미국을 뛰어 넘고 세계 제1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둘째 소련과 미국은 서로간의 교류와 대화를 극대화하고 노력했으나, 적대시하는 냉전을 치렀지만, 현재 중국과 미국은 차이메리카(Chimerica)라는 용어에서 나타났듯이 경제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서로 최대교역국 중 하나이며 중국은 미국 부채의 약 10.5%를 보유하고 있어 미국 국제 최대 보유국이기도 하다.

셋째 소련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동부유럽에서 다수의 위성국가가 있어 불안정한

블록을 이루고 있었지만, 중국은 전 세계 인구의 1/4을 갖고 있으면서 문화적으로는 수천 년 동안의 통일을 이루고 있어 매우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양분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들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

## 중미 정상회담과 한미동맹 외줄타기

이 나눈 대화와 협상, 그리고 공동성명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제는 이것들을 제대로 해석하는 데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역시 양 정상들이 나눈 북한관련 안전과 중미 간에 채택된 공동성명 제18항이다.

여기서 오바마 대통령은 만약 중국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자국영토에 대한 북한의 잠재적인 공격을 막기 위해 아시아 지역에 병력을 이동 배치(redeploy)할 수밖에 없음을 경고했다. 또한 공동성명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이뤄진 기타 약속 전면적 이행, 북한이 주장하

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 표시, 그리고 6자회담 프로세스의 조속한 재개 등을 담고 있다.

국내의 주요 언론들은 비공식 만찬에서 나온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과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표시를 중국도 북한 압박에 동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한국의 입장이 보다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포함된 동북아 정세를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작년 11월 스탠퍼드 대학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와 밥 칼린 씨를 초청해 영변에 우라늄 농축

측 공동성명서에는 부정적 의미의 '우려'보다는 중립적 뉘앙스의 '큰 관심을 표시했다(表示關心)'는 표현이 사용됐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이 소규모 비공식 만찬에서 한 북한 위협에 대한 미군 재배치 발언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전략인 '전략적 인내'가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전환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북한이 바라던 것이다. 이것은 주류 언론에서 보도하듯이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북한 압박에 동참하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며 보다 설득력 있는 해석이다. 또한 이것은 G2 국가로 성장한 중국의 보이지 않는 노력으로 인한 외교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흑룡강, 길림, 요령성, 내몽고 등 동북4성 개발을 완성해야 하고, 동북4성 개발의 완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가 필수 조건들이다.

이러한 중국에게 한미동맹을 배경으로 북한 압박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한국은 관리대상이다. 중국이 한국을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미국을 통해서다. 영리한 우방도, 또 영리한 적도 없는 것이 국제관계의 냉엄한 현실이다. 한미동맹이라는 외줄타기만을 하는 한국이 엔지 불안해 보인다.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의료 칼럼

강채미



명절 전후로 머리와 가슴이 짓눌리고, 소화도 안 되고, 손발 마비,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주부들이 늘어난다.

시력과 청각들에게서 겪을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몸이 아파옴과 동시에 우울증까지 드러나는 스트레스성 질환인 '명절 증후군' 탓이다. 명절 전후 2~3일에 가장 심하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대개 풀리는데,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주부 우울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명절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남성들이 설 연휴 동안 가사 노동은 분담하는

이 안 오는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방치하면 불면증이 일상화될 수 있으므로 동글레차와 산초인차에서 해법을 찾아본다. 동글레차와 아생대추의 씨를 말린 산초인은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 불면증과 정신불안을 진정시킨다. 동글레차는 보리차처럼 열개 끓여 마신다.

백합 20g, 볶은 산초인 40g에 물 2사발을 붓고 2시간 정도 달인 뒤 3분의 1로 졸아들면 하루 3~5회 나누어 마신다. 짠 음식, 커피, 홍차 등 카페인 음료, 술은 피한다. 침구를 파란색 계열로 바꿔주는 것도 좋다. 파란색은 불안정한 시각을 안정시켜 주어 혈압을 떨어뜨리

## 명절 증후군

등 적극적으로 아내를 돕고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좋다.

설 연휴 동안의 호르몬 리듬과 귀경 전쟁은 몸을 젖은 솜뭉치처럼 무겁게 만든다. 피로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낮에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다.

아로마 요법이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 욕조에 물을 받아 로즈마리와 제라늄을 3방울씩 타서 입욕하면 긴장감이 풀이면서 몸이 편안해진다. 가벼운 감기몸살 기운까지 나타났다면 라벤더 5~6방울을 넣고 입욕하면 된다. 일상 복구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베르가못, 카모마일, 라벤더, 로즈, 제스민 가운데 한두 가지를 섞어 사용한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미지근한 물에 오일을 떨어뜨린 후, 오일이 피부에 스며들 수 있도록 15분 정도 몸을 담근다. 입욕이 끝난 후에는 물기를 닦지 말고 그대로 말리는 게 좋다.

연휴 동안 수면 패턴이 바뀌면 일상 복귀 후 낮 졸림증이 심해지고 밤에 잠

고 마음을 가라앉혀 줌으로써 안정된 수면 분위기를 조성한다.

주부의 경우 설 연휴기간 동안 고된 부업일 때문에 근육통이 생기기 쉽다. 이럴 때는 전통적인 민간 통증 치료법인 찜질로 회복을 꾀해본다. 늙은 호박을 이용한 찜질이 도움이 된다. 늙은 호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육 구석 구석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근육 피로를 빨리 풀어준다. 늙은 호박을 껍질째 찢어서 으갠 것을 거즈에 싸서 조금 식으면 아픈 부위에 바른다. 호박 거즈가 차가워지면 따뜻한 것으로 바꿔 한번 더 붙여준다. 이를 하루에 2~3회 실시한다.

오랜 시간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팔과 어깨를 많이 쓰게 되고 어깨도 자주 결절이 된다. 이때 목 뒤 끝 부분과 어깨 축지의 중간 부분인 '견정혈'을 눌러주면 시원해진다. 어깨 지압 전에 뜨거운 물수건을 대 근육을 이완시킨다. 어깨에 손바닥을 대고 엄지손가락으로 견정혈을 주무르듯 누른다. 목이나 어깨뼈를 같이 눌러주면 더욱 좋다.

<박달나무 한의원 원장>

## 기고

노대우



2011년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한해였다. 국민연금기금은 지난해 이미 300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1900만 명에 이르렀다. 2000년 이후 계속 줄어든 지역가입자들이 10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고, 주부 등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가입하는 임의가입자도 2009년 대비 148.1%라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광주 전남지역도 마찬가지다. 지역가입자는 농어민, 자영업, 임시 일용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임의 가입자는 주부, 학생 등 소득활동을 하

2011년에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고 서비스 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지사에 행복노후 설계센터 140개소를 설치하여 노후소득 및 노후생활과 관련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내연금 갖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연체를 하거나 가입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사업장가입자의 가입기준을 월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완화한 데 이어 2011년

## 평생월급! 내 연금으로 준비하기

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걸 보면 이들 가입자 수의 증가는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이 지역가입자의 소득신고자 수가 증가하고 임의가입자가 급증한 이유는 국민연금이 가장 안전한 '노후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판단과 안정적인 기금 운용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령인구와 전체 인구의 소득 빈곤율 차이가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노인 자살률도 1위로 나타났다. 자살의 원인으로서는 우울증, 질병, 자녀와의 갈등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들은 은퇴 후 의료비 부족, 삶의 질 하락, 자녀의 부모 부양 문제 등 노후자금 부족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은 사회적인 문제를 접할 때마다 노후준비가 얼마나 중요할지 다시 깨닫게 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연금 가입자수가 증가하고 연금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연금에 대해 이해 부족으로 가입을 미루거나 제도 미비로 가입을 못 하는 분들이 있다.

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사업장가입자 적용 등 법령 개정을 통해 가입을 확대하고 정기연금 지급일 단축, 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제공 등 고령 편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 취약계층인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장애등급 위탁심사를 현재 중증 재심사에서 4월부터는 1~6급까지 전 등급으로 확대하고 10월에 실시되는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위해 모델 설계, 시스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올 상반기 직원 신규채용에서는 장애인들의 참여를 높여 실질적인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전체 인원의 10%인 32명을 장애인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2011년에는 모든 국민이 은퇴 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연금'을 갖게 되어 평생월급을 준비하는 해가 되고 장애인 및 저소득계층이 차별 없이 배우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장>

## 손씻기 생활화로 겨울철 독감 예방을

얼마 전 미국에서 돌아온 지인을 만나게 되어 약수를 청하려 했더니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었다. 내가 약간 무안해 하자 본인 이 독감을 앓았기 때문이라며 서운해 하지 말라고 했다. 세상 외국인들의 청결과 위생관념을 알 수 있었다. 겨울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병이 독감일 듯 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종플루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감기와 독감 바이러스는 사람 손에서는 2시간, 문 손잡이나 키보드 같은 딱딱하고 건조한 표면에서는 20분 정도 살아남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손씻기와 같은 기본적인 청결 습관들이 겨울철 질병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겨울철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하고 손쉬운 방법은 바로 손씻기라는 점을 명심하고 귀찮더라도 2분씩만 투자해서 손씻기를 게을리하지 말자.

▲유은규·광안시 항길동

## 시설

### 광주R&D특구, 대전 '중속'은 안 된다

광주 미래 성장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졌던 광주연구개발(R&D)특구가 대전대덕특구에 중속해 자칫 '속빈 강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대전특구를 허브로 하고 광주·대구는 지역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조직도 대전 산하에 지역 본부를 두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전 대구에서 열린 '영·호남 상생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서 흥진기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대전대덕특구는 미래 신기술의 특화분야를 선정해 기초과학과 응용연구, 신산업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육성되며 광주·대구 특구는 각각 광산업과 IT분야 기초·응용연구, 지역 거점 클러스터의 형태로 조성된다는 것이다.

또 대전대덕특구 내 연구기관 일부가 광주·대구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조직도 대전에 설치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총괄관리를 맡

고 그 산하에 지역본부를 설치해 10명 내외의 인력만 돌 방침이라고 한다.

이처럼 정부가 대전을 기술중심거점 허브, 광주·대구 특구를 기술 수요 거점으로 삼고, 조직도 이를 근거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은 신규 특구의 발전에 큰 장애 요소가 되는 것이다. 특히 기획 및 인프라 조정 기능을 대전에만 부여한다는 것 역시 신규 특구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줄이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대전 예측을 전제로 한 특구 조성 방침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말 그대로 특구의 특성을 살리고 독립적인 육성책을 모색해도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전에 중속시키겠다는 것은 '무늬만 R&D특구'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없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함께 정부 방침 또 대전대덕특구 내 연구기관 일부가 광주·대구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조직도 대전에 설치되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총괄관리를 맡

## 설 구제역 전남 유입 방지 총력 쏟아야

전남지역 축산농가에 구제역 공포가 증폭되고 있다. 전남과 함께 구제역 청정지역이던 경남 방역망이 풀린데다 민족 대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닥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예방백신마저 수급이 제대로 안 돼 지역 축산농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발병 2개월째를 맞은 구제역은 진정엔 커녕 갈수록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에는 지리적으로 맞닿아 있는 경남마저 맥없이 무너져 지역 축산농은 초긴장 상태다.

시·도 가운데 전남과 제주지역만이 온전한 상태다. 하지만, 이들 지역을 구제역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지는 극히 불투명하다. 수천만 명의 귀성객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설 연휴기간에 방역망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남도도와 각 지자체, 지역 축산농은 구제역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간 경제초소와 인력을 대폭 늘리고 사료차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구

제역 차단에 총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 정부가 나름대로 방역에 총력을 기울였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이를 입증하고 있다. 구제역으로부터 전남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설 연휴기간 동안 최소 수백만명의 귀성객이 전남을 찾은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이 설 연휴 때 구제역 무방비 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개인성이 그만큼 높은 것이다. 따라서 귀성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하게 고향을 찾더라도 귀성객들 스스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만 최악의 사태를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축산농가를 방문하는 일이 있어서서는 안 된다.

지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의가 전남을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보존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지역민 모두가 힘을 합쳐 구제역의 전남 유입방지에 총력을 쏟을 때다.

## 無等鼓

정의를 무엇인가? 최근 젊은 직장인과 중장년 남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가 묻는 화두다. 70만부가 넘게 팔리며 지난해 최고의 베스트 셀러에 올라 정의를 위한 질문을 던졌던 샌델교수가 하버드대 특강으로 지난 3일부터 안방을 찾아왔다.

이 강의 방송은 밤11시10분, 다소 무거운 인문학 강의임에도 동시간대 시청률 2배와 트위터 등 각종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기가 확산되고 있다. 게다가 DVD 출시도 예정 돼 있다. 가히 샌델 신드롬이다.

그의 인기 비결은 무엇일까. 첫째는 정의론 분야의 세계적 학자이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된 때도 있는가? 등 우리가 시민으로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질문들을 통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얻게 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학생들에게 상황에 맞는 질문과 답을 요구하며 서로 토론하게 한다. 설명을 위해 클린턴의 거짓과 실인자 등 실제 생활 사례를 인용한다.

이처럼 그는 '소통'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정의를 찾아 한발 한발 다가간다. 많은 시청자들이 강의에 열광하는 것은 일상 속에서 삶을 일구어 가는 현실을 존중하고 그의 '소통의 철학'이 묻어나기 때문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 이라는 극단적 이분법적 사고에 젖어있는 정치권과 어너트 물 들어 가고 있는 우리네 사고에 소통의 방법이 신선한 자극으로 다가온다. 많은 이들이 그의 강의에 열광하는 것은 그의 인문학에 대한 높은 이해와 더불어 학생과 소통하며 진리를 찾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최재호 정경부 차장 lion@

## 마이클 샌델의 인기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111(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9-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0-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이케팅국 222-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선부 2200-571	다 시 진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전 산 부 2200-685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